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KOREAN CHEMICAL & TEXTILE & FOOD WORKERS' UNION KAKAO DISTRIC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6, 카카오판교아지트 A동 3층 / kakaounion@gmail.com

제목	카카오모빌리티 집단행동 돌입, “고통분담 요구 거절해”
문의	서승욱 지회장(010-2517-3248)
보도일시	2023년 3월 7일 16시 즉시

카카오모빌리티노조 단체교섭 결렬 선언, “경영진, 고통분담 일언지하 거절해”

15차에 걸친 교섭에서 점점 찾지 못해

카카오노조, 고통분담 요청 거절한 모빌리티 경영진 자기 몫 챙기기만 급급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지회장 : 서승욱, 이하 노동조합)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부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15차에 걸쳐 교섭을 이어갔지만 노사 간의 접점을 찾지 못해 결렬에 이르렀다는 게 노동조합 측 설명이다.

노동조합은 지난 3일 15차 교섭에서 임금 및 인센티브 회사 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근무제도의 노사간 협의 △경영진의 고통분담 △23년 하반기 내지 24년 상반기 사용처가 확대된 복지포인트 지급을 최종안으로 제안했으나, 회사 측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결렬하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내부에선 일부 경영진에게 쏠린 성과보상과 모빌리티 매각 추진 실패 이후 표류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매각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카카오모빌리티의 류궁선 대표는 현재 132만 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부여되어 있어 회사가 내실 다지기 보다 외형 확장 및 IPO(기업공개)와 같은 엑시트에만 급급했다는 게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카카오T 콜 몰아주기 관련으로 25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회사는 억울함만 주장할 뿐 내부 구성원에 대한 책임 있는 소통과 해명이 부족한 상태로 일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A씨는 “외형 다지기에 급급하다 보니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소통이 상대적으로 미흡” 하라며 “회사의 소식을 외부로부터 먼저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진행된 교섭에서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과 외부적인 여건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교섭 요건을 수락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고, 이에 노동조합은 임금 요구안 및 인센티브 요구안에 대해 회사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회사 안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경영진이 솔선수범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영진의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수락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대 카카오모빌리티 분회장은 “노동조합이 투명한 소통, 경영진의 고통분담과 관련되어 최종안을 제안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아쉽다.”라며, “경영진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현 상황에 대한 고통분담을 한다는 의사만 있다면 지금 이 시각에도 교섭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고통분담은 경영자가 노동자에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처럼 노동자가 경영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아이러니” 하다고 현 상황에 대해 평가하면서, “카카오의 여러 계열사들도 위기 상황에서 연봉 동결 및 인센티브 반납에 나섰는데 유독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들만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조합은 향후 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회사와의 주요 쟁점에 대한 조정을 이어나가는 한편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